

운동하느라 못 놀아본 언니들, 승부욕? 예능욕!



왼쪽부터 남현희, 박세리, 정유인, 광민정.

E채널 '노는 언니' 오늘 첫 방송...골프 박세리 등 여성 스포츠인 구성

수학여행도, 미팅도 못 해보고 운동에만 매진해 온 그녀들이 한바탕 제대로 논다.

4일 방송을 시작하는 E채널 '노는 언니'는 골프 선수 박세리를 필두로 펜싱 남현희, 배우 이재영·이다영 자매, 피겨 광민정, 수영 정유인이 경기장을 잠시 벗어나 '놀아보는' 예능이다.

여성 스포츠 선수들이 승부욕은 내려놓고 버킷리스트에 채워둔 바람들을 하나씩 이뤄가며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는 게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최근 MBC TV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박세리는 3일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여자 선수들은 왜 (예능에서) 노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운동선수들로, 특히 여자 선수로만 구성된 게 특별하고 취지가 굉장히 좋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씨름선수 출신 강호동·이만기부터 안정환과 서장훈, 허재, 현주엽 등까지 남성 스포테이너(스포츠+엔터테이너) 계보는 오래됐지만, 여성 스포테이너는 배우 선수 김연경 정도를 제외하면 찾아볼 수 없었다.

남현희 또한 "(여성 선수가 출연하는 예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많이 바랐는데 기회를 주셔서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예능계가 남성 스포츠 선수들로 대세가 이뤄진 까닭에 '노는 언니' 출연진은 "이번 예능이 첫 고정 출연"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세리는 "(대중에게) 항상 완벽하고 심각한 표정이 몸에 밴 것처럼, 운동했을 때 이미지가 각인돼 있다. 이 예능으로 제 직업이 아닌 쪽에서도 더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며 웃었다.

남현희는 "같은 운동을 하지만 종목이 다르다. (서로) 알아갈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아 설렌다"며 "운동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특성, 진출한 모습을 보고 싶고 저도 많은 분께 보여드리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고, 광민정은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난 것 같아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노는 언니'는 '황금어장', '일요일 일요일 밤에', '한끼줍쇼' 등을 제작·연출한 방현영 CP가 티캐스트 E채널로 이전한 후 처음 선보이는 예능이다.

방 CP는 "연예인 MC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주변에서) 걱정을 했는데 제작진은 이분들이 주인공 공이 돼서 만드는 캐릭터를 보여주고 싶었다"며 "또 TV에서 맛있는 여성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싶기도 했다"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4일 오후 8시 30분 첫 방송. /연합뉴스



왼쪽부터 유재석·이효리·비.

'썩쓰리' 적수가 없다

음원차트 1~6위 점령

MBC TV '놀면 뭐하니?'로 결성된 이효리, 비, 유재석의 혼성그룹 '썩쓰리'가 강력한 음원 파워를 계속 발휘하고 있다.

썩쓰리 음원은 2일 오후 지니뮤직과 벅스 실시간 차트에서 1~6위를 통째로 점령했다. 전날 발매된 세 멤버의 솔로곡을 비롯해 단체곡과 히트 트랙 등이 최정상 아이돌 그룹이 컴백할 때처럼 최상위권에 나란히 늘어섬어 이른바 '줄세우기'를 연출했다.

지니뮤직에서는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이효리와 윤미래의 '린다'(LINDA)가 1위를 차지하고 비와 마마무의 '산남다'가 2위, 타이틀곡 '다시 여기 바닷가'가 3위에 올랐다. 이어 단체 곡 '그 여름을 틀어줘'가 4위, 유재석과 광희의 '두리쭈와'가 5위, 히든트랙인 이상순의 '다시 여기 바닷가' 어쿠스틱 버전이 6위에 차례로 늘어섰다.

24시간 누적 이용량을 기준으로 순위는 내는 멜론과 플로 차트에서도 지난달 18일 발매된 '다시 여기 바닷가'가 굳건히 정상을 지키는 가운데 멤버들 솔로곡이 빠르게 상위권으로 올라오고 있다. '린다'는 오후 3시 기준으로 멜론에서 11위, 플로에서 9위를 차지했다.

최근 썩쓰리는 타이틀곡 '다시 여기 바닷가'와 후속곡 '그 여름을 틀어줘', 그리고 멤버별 솔로곡을 3주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열풍을 이어왔다.

썩쓰리에서 파생된 또다른 프로젝트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이효리는 '놀면 뭐하니?'에서 자신과 엄정화·제시·화사 등 카리스마 넘치는 여자 솔로가수 4인의 조합을 거론해 주목받았다. /연합뉴스

무엇을 남기고 무얼 버릴 것인가

tvN '신박한 정리'·'바퀴 달린 집' 비움 메시지 시청자 공감

무엇을 남기고 버릴 것인가는 누구에게나 평생의 숙제다. 양손 가득 잡다한 짐을 들고 있으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비움'은 중요하다.

최근 tvN이 연이어 선보인 예능 '신박한 정리'와 '바퀴 달린 집'은 두 편 모두 비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신박한 정리'는 미니멀리스트를 자처하는 배우 신애라와 개그우먼 박나래, 배우 윤균상이 집 정리를 의뢰한 스타들의 집을 찾아 정리해주는 콘셉트다.

가장 화제가 된 의뢰인은 가수 겸 배우 양동근이었다. 부부와 아이 셋, 강아지 두 마리가 함께 사는 집에서 양동근을 위한 공간은 없었다.

하지만 비움을 원칙으로 집을 정리하자 그를 위한 아지트도 충분히 만들 수 있었다. 이 공간에는 사진과 트로피 등 아티스트로서 양동근의 일대기가 고스란히 담겼고, 주인공은 "빛이 닿지 않는 곳에 빛이 들어온 것 같다"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흔히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만을 정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박한 정리'는 진정한 정리는 비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한다. 물건에는 저마다 사연이 깃들어 있고, 그러한 물건을 정리한다는 것은 인생을 돌아보며 추억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것과도 같다. '신박한 정리'에 출연한 의뢰인들이 그랬다.

'바퀴 달린 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행을 맘껏 할 수 없는 시청자를 위해 트레일러 하우스를 선보였다.

화려한 집들이도 좋지만, 자연을 배경 삼아 과감히 비워내고 축소한 집을 엿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풍경이 바뀔 때마다 액자가 바뀌듯 새로운 집 같아서 집주인도 초대받은 손님도 시청자도 즐겁다. 음식도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게스트가 가져온 것을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나눈다.

캠핑카의 핵심 역시 비움이다. 물론 요즘 '역' 소리 나는 캠핑카는 호텔 부럽지 않다지만, 현실적으로 다소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비워내 유랑에만 집중한다면 더 오히려 자연을 만끽할 수 있고 동행자들과의 대화도 풍성해질 수 있다.

tvN도 비움의 미학과 소박한 일상이 두 프로그램 관통하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신박한 정리'는 3%대(닐슨코리아 유료가구), '바퀴 달린 집'은 5%대의 안정적인 시청률을 보이는 동시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며 시청자의 공감을 얻고 있다.

tvN 관계자는 1일 "'신박한 정리'는 최근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집'이라는 공간에 더욱 관심을 많이 갖게 된 영향으로 화제가 되는 것 같다. 마음먹고 집을 비우고 정리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갖고만 있었던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내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극적 상봉 남매 덕에 시청률 '경풍'

KBS 2TV 주말극 '한 번 다녀왔습니다' 시청률 35% 돌파

돌고 돌아 다시 만난 남매 이야기에 시청자의 눈이 쏠렸다.

3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55분 방송한 KBS 2TV 주말극 '한 번 다녀왔습니다' 시청률은 32.1%~35.6%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KBS 주말극이 35%를 넘는 것은 지난해 9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최종회가 35.9%를 기록한 이후 거의 1년 만이다.

전날 방송에서는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서로를 마주한 송영달(천호진 분)과 송영숙(이정은)의 애

뜻한 사연과,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린 송기희(오윤아), 박효신(기도훈)의 모습이 그려졌다.

특히 송영숙은 자신에게 계속 사과하는 송영달에게 "늦었지만 오빠는 약속 지켰어요. 나 데리러 온다는 약속"이라며 진심으로 위로해 심금을 울렸다.

자녀들 모두가 '한 번 다녀왔습니다' '돌싱'(돌아온 싱글) 콘셉트로 현실성에 코믹을 얹어 눈길을 끈 '한 번 다녀왔습니다'는 최근에는 주말극답게 출생의 비밀과 가족이라는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시청자층을 넓히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때문에 취재 못해'

SBS '본격연예 한밤' 폐지

SBS TV는 연예 정보 프로그램인 '본격연예 한밤'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SBS는 제작환경 변화와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공연 등 취재가 어려워지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방송일은 미정이다.

'본격연예 한밤'은 '한밤의 TV연예' 후속격으로 2016년 12월 처음 방송했다.

'본격연예 한밤' 폐지에 따라 지상파 연예 정보 프로그램 중 KBS 2TV '연중라이브'만 남게 됐다. MBC TV는 지난 1월 '섹션TV 연예통신'을 폐지했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약초당건강원 동구 산수동 557-33(산수시장동) 인삼·벌꿀·홍삼·생약조증·봉어즙·강아즙 닭발즙·참죽·포도즙 각종증 뱀다. ☎ 062)224-9559, 010-3617-9779	명품크리닝 전문점 서구 지평동 275-22(우리동별원동) 명품스키·겨즈·운동화·가방·캐주얼·의류·복합 수선업체 주인 직접 명품세탁, 유모차 전용세탁소 오픈 (비대면 수거배달, 문자접수) ☎ 010-6559-6700	아주민물장어탕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양4로82번가길4-7 민물장어탕·민물장어구이 포장가능합니다 ☎ 061)285-1255, 010-8620-8171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평화식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		
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메뉴 포장및배달가능 직접전화및배달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유)신화로프 본점: 나주시 청동길 244 PP로프, 안전로프, 형광로프, PE로프, 비닐, 천막, 안전망 전국최저가도·소매 ☎ 061)335-2301~2, 010-3429-6400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 북구 북문대로 35(운암동) 상가·아파트·주택·토지·각종부동산매매상담 고객만족! 책임중개! ☎ 062)225-3303, 010-2651-6409	사랑방공인중개사 사무소 북구 운암동 미라보3차@상가동 3호 아파트·빌라·주택·상가·토지·임야매매·전월세 각종부동산매매 상담 신용분위 ☎ 062)574-8924, 010-9332-8184	석당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유품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고전방 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미가한우명가 나주시 풍물시장2길54(영산포버스터미널옆편) 생고기, 생고기비빔밥, 떡갈비정식 ☎ 061)333-0505, 010-4390-3366	비비가 동구 대인동 영무파라드2차 1층 "완벽한 한그릇 비빔밥" 비빔밥 & 해산물 비비가비빔밥·간종해산물비빔밥·돌솥비빔밥·연어초밥·회센터 ☎ 062)229-1008, 010-8572-0999	마루전통한방차전문점 나주시 영산포로184-1(영산포우체국 앞) 심전대방탕, 생화탕, 대추탕, 오미자차, 생강차 각종과일주스, 구워낸 가래떡과 초창을 드립니다 ☎ 061)333-6567, 010-7200-6567	뮤엄영어동림캠퍼스 북구 동림동 푸른마을4단지상가 1층 1:1 맞춤 커리큘럼 뮤엄영어에 있습니다. 원장 개인지도 초·중등생 수시모집 ☎ 062)266-1221, 010-2425-3093	초대화랑 동구 궁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장어수산 북구 서암대로 88(신안다리앞) 무항생제 장어사용 포장배달·전국택배배송·선물포장해드립니다. 신용분위 ☎ 062)412-1961, 010-5828-1961	우리식당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한성꽃화원 나주시 나루로71(송월동 LG화학앞) 근조·축하화환, 동·서양관, 관엽전국배달 ☎ 061)334-3200, 010-3623-6921	만복당 동구 제봉로 184번길 5-9 (대인시장내) 골동품,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 미술품 매도·매입합니다. 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 ☎ 062)959-0680, 010-4602-0680	박당화랑 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대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